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000억 원 추가 융자 지원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에 1.3% 금리로 최대 500억원 지원
- 모집 공고·신청 기간 : 8.21(목) ~ 9.19(금)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5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8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 원(R&D 자금은 100억 원)까지 최대 10년간(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1.3% 금리*('25.8월 기준)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기재부 공시)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p 차감, 대기업은 1.5%p 차감 적용 → 현재는 금리 하한인 1.3%

특히,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산업, △사업 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뿐 아니라 탄복위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에게도 선정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금번 공고 관련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단공 융자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kicox.or.kr/netzerofin)를 통해 9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22년부터 동 사업을 통해 저탄소설비 도입 등 총 83건의 프로젝트에 6,48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2.6조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선도프로젝트 지원 사례는 오는 8월 27~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2025 기후산업 국제박람회'(별도 홍보부스 운영)에서 만나볼 수 있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상은 (044-203-4240)
		담당자	사무관	이석호 (044-203-4243)

□ 사업 목적

-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자금 지원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중립 실현 및 관련 생태계 조성에 기여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R&D 프로젝트

□ 추진체계 및 지원방법

- 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지원방법 : 취급은행(대여약정을 맺은 14개 시중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 주요 내용

- (지원규모) '25년 총 2,150억 원
-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중소, 중견, 대)
- (지원분야) 시설자금, R&D자금
- (융자비율) 프로젝트 총 투자금액 대비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0%, 대기업 50% 이내
- (융자한도)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 이내, 최대 3년 지원가능(시설 자금 500억 원 이내, R&D자금 100억 원 이내)
- (대출금리) '25.8월 기준, 중소·중견·대기업 1.3%
 - *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기재부 공시)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p 차감, 대기업은 1.5%p 차감 적용(금리 하한은 1.3%)
- (대출기간) 최대 10년(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